

18.10.08(월)~18.10.12(금)

1. 전주 주가 추이

	현재가	Mkt. Cap.	PBR (2018F)	PER (2018F)	ROE (2018F)	Performance					Weekly Net Buy			공매도 거래대금	
						1 W	1 M	3M	6M	YTD	Institution	Foreigners	Pension	1W	1M
KOSPI	2,162	1,310,348	0.9	8.8	11.1	-4.7	-5.3	-5.4	-11.5	-12.4	385	-818	116	2,401	8,382
KOSDAQ	732	138,701	2.3	17.7	13.3	-5.5	-11.5	-10.7	-17.0	-8.4	396	44	0	535	2,119
보험	17,117	21,287	0.6	8.3	7.4	-5.7	1.1	-2.9	-9.9	-19.0	14	-22	2	35	102
증권	1,652	16,553	0.7	7.8	9.4	-8.1	-9.4	-9.9	-17.8	-16.8	-29	-14	-8	31	75
삼성생명	90,300	18,060	0.6	8.1	6.9	-6.8	-1.4	-6.5	-20.4	-27.5	-4	-6	-5	6	19
한화생명	4,745	4,121	0.4	7.0	5.6	-9.1	-2.0	-7.0	-20.4	-31.3	-4	-0	-1	2	6
동양생명	6,100	984	0.4	12.3	3.3	-2.1	-2.2	-17.0	-26.4	-19.7	0	0	-0	0	1
삼성화재	272,000	12,886	1.1	12.6	8.5	-3.9	4.0	2.8	3.2	1.9	4	-1	2	9	24
DB손해보험	70,400	4,984	0.9	7.5	12.7	-3.8	10.5	15.2	19.7	-1.1	-0	2	3	8	22
현대해상	39,000	3,487	0.8	6.5	13.8	-7.6	8.2	14.0	8.9	-17.0	11	-11	1	7	21
메리츠화재	18,500	2,103	1.2	7.9	14.8	-4.9	3.9	-3.6	-8.9	-21.3	4	-2	1	0	2
한화손해보험	6,290	734	0.5	5.3	10.5	-7.5	-7.0	-3.7	-15.1	-22.7	0	-1	0	0	1
삼성증권	28,350	2,532	0.5	6.8	8.1	-8.7	-9.1	-14.0	-20.6	-22.5	-8	-5	-2	5	9
미래에셋대우	7,160	4,714	0.6	8.1	7.8	-9.7	-12.4	-11.8	-20.0	-22.1	-6	-4	-4	9	22
NH투자증권	12,350	3,475	0.7	8.6	8.6	-8.2	-6.4	-9.5	-11.2	-11.2	-3	-3	-1	8	21
한국금융지주	63,400	3,533	0.8	6.1	14.8	-9.8	-8.8	-17.4	-20.8	-8.1	-8	4	-3	5	11
키움증권	75,900	1,677	0.9	6.4	16.5	-8.8	-15.9	-23.9	-31.9	-13.4	-9	4	-1	2	7

자료: 개별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지수 추정치는 Inguide 컨센서스 기준

2. 전주 동향

보험	<p>보험업종 약세 시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주 초반 상대적으로 강세를 시현하였지만 목요일과 금요일 차익 실현 매물 및 시장 반등을 기대한 투자자들의 낙폭과대 종목 투자 수요가 었기 때문임. 미국의 금리가 강세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관련 모멘텀이 보험업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 이는 한국의 경기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한국 장기채권금리의 제한적 상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p> <p>▶ 고양 저유소 화재: 고양 저유소 화재로 인하여 손해보험사들의 지급보험금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일반보험의 경우 주간사를 선정하여 여러 보험사가 공동 출재를 하게됨. 고양 저유소의 주 DB 손해보험이며 K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등이 공동출재하였음. 가장 많은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는 DB 손보의 경우 30% 중반을 인수하였지만 출재율이 50% 수준이기 때문에 익스포저는 15~17%이며 피해 총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50억원내외의 언론보도를 감안할 때 피해 가능금액은 10억원 이하가 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크게 우려할 만한 보험사고는 아님</p>
증권	<p>증권업종 약세 시현: 그동안 상대적으로 강세를 시현하였던 미국 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신흥국 시장의 변동성은 더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시작은 중국시장의 폭락으로 부터 발생하였음. 시장 하락 측면에서는 Brokerage 수수료 감소, 신용잔고 감소, 금융상품 투자 축소 등의 영향이 예상되며 주요국 지수의 하락은 ELS 조기상환 감소, 해외투자자산의 평가손실 등을 동반함</p> <p>▶ 부동산 금융 및 상품 위축에 대한 뉴스: 최근 부동산 금융 및 상품에 대한 뉴스가 증가하고 있음. 주거용 건축물에서는 지방과 수도권을 양극화로 물건이 감소(지방은 미분양 가능성이 높아 증권 용 보장을 해주기 어렵고, 서울은 미분양 가능성이 낮아 시행사가 매입확약 등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음)하고 있으며 대형 오피스 등 프로젝트성 건축/건설 물량이 감소하며 증권사들의 대출 축소되고 있고 해외 부동산 매입 후 sell down 사업의 경우 리테일 수요 감소, 환헷지 코스트 증가로 기관투자자들의 수요 감소 등이 최근 일부 감지 되고 있기 때문임</p>

3. 주간지표 업데이트

	전주	YTD	Monthly					MoM	Quarterly					QoQ
			18.05	18.06	18.07	18.08	18.09		4Q17	1Q18	2Q18	3Q18	4Q18	
일평균거래대금	조원	17년대비, %						조원	%				조원	%
KOSPI+KOSDAQ	10.7	17.8	15.0	12.4	9.0	8.8	10.8	10.4	-3.1	11.8	13.8	13.9	9.4	10.4
KOSPI	6.9	29.6	9.1	7.5	5.5	5.2	6.1	6.7	10.5	6.0	7.0	8.1	5.6	6.7
KOSDAQ	3.7	0.7	5.9	4.9	3.4	3.5	4.7	3.7	-20.7	5.8	6.8	5.8	3.8	3.7
신용잔고	조원	YTD, %						조원	%				조원	%
KOSPI+KOSDAQ	11.7	18.8	12.5	11.8	10.8	11.3	11.8	11.7	-0.4	9.8	11.3	11.8	11.8	11.7
KOSPI	6.0	33.4	6.2	6.0	5.5	5.7	5.9	6.0	1.1	4.5	5.4	6.0	5.9	6.0
KOSDAQ	5.7	6.7	6.3	5.8	5.3	5.6	5.9	5.7	-2.0	5.4	5.9	5.8	5.9	5.7
국고채금리[기말]	%	YTD, bp						%	bp				%	bp
1년	1.85	3.0	1.85	1.85	1.83	1.73	1.85	1.85	0.5	1.85	1.89	1.85	1.85	1.85
3년	2.05	-6.5	2.20	2.12	2.13	1.91	2.00	2.05	4.8	2.13	2.22	2.12	2.00	2.05
5년	2.23	-10.5	2.48	2.35	2.36	2.10	2.18	2.23	5.5	2.35	2.43	2.35	2.18	2.23
10년	2.40	-9.2	2.70	2.56	2.57	2.31	2.36	2.40	4.5	2.47	2.62	2.56	2.36	2.40
약정 MS	%	17년대비, %p						%	%p				%	%p
삼성증권	6.0	0.1	6.1	6.0	6.1	6.0	6.0	6.0	0.1	6.0	6.2	6.2	6.0	6.0
미래에셋대우	12.4	-0.2	12.8	12.3	12.4	12.2	12.3	12.4	0.0	13.2	13.3	12.8	12.3	12.4
NH투자증권	6.2	0.2	6.4	6.4	6.5	6.9	6.5	6.2	-0.3	6.4	6.3	6.4	6.6	6.2
한국금융지주	5.3	-0.5	5.2	5.1	5.3	5.4	5.6	5.3	-0.3	5.8	5.7	5.3	5.4	5.3
키움증권	17.3	0.8	18.2	17.9	16.9	17.4	17.4	17.3	-0.2	17.4	17.5	18.2	17.2	17.3

자료: KOFIA, Check, KRX

4. 금주 전망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식인 손해보험업종에 대한 선호는 금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전주 시장 급락이후 금요일에 반등이 나오면서 낙폭 과대 종목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음. 하지만 전주 미국 및 신흥국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한 요인(미국 금리, 환율 등)은 해소되는 단계가 아닌 것이며 우리는 11월에 발표되는 10월 임금상승률이 금리와 관련하여 또 한번의 시장 충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식에 대한 선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 3분기 프리뷰 자료에서 언급하였듯이 3분기 실적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높은 상승 때문에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11월 자동차보험료 인상(인상 수준이 문제이지만..)이 예상되며 내년 1분기 손보험료 인상도 진행되고 시책(추가 판매비) 규제로 인하여 내년 사업비율의 개선까지 고려한다면 손해보험사의 2019년 이익 가시성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됨. 따라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손해보험업종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 우리는 DB손보, 현대해상을 최선호 종목, 삼성화재를 관심종목으로 유지함
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 금요일 낙폭 과대 종목들의 반등이 이루어질 때 증권업종의 반등은 상대적으로 미진하였음. 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1) 시장의 큰 폭 반등을 투자자들이 예상하고 있지 않다는 점, 2) 금리, E 상환 등의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우려가 아직은 진행 중이라는 점 때문이라고 생각함 - 금주 시장이 큰 폭의 반등을 시현한다면 낙폭 과대 종목인 증권업종의 반등이 지속되었지만 전주 금요일 유럽 시장의 하락, 미국 시장 또한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장중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에서 추가지수의 큰 폭 반등에 투자하기는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함. 우리는 11월에 발표되는 미국의 10월 임금인상률(3% 이상 가능)에 대한 우려를 유지하고 있음 - 4분기 거래대금 감소(계절적 요인)과 ELS 조기상환 감소, 금리 상승, PI 성과 부진 등 시장 변수의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확보된 IB deal과 증권 이외의 자회사 성과가 안정적인 상대적 안정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만약 시장의 변동성이 현재 대비 확대된다면 지금의 이익의 원천(IB deal 및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 등)이 Risk 점검 요인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고 있는 증권사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될 여지도 존재함 - 우리는 한국금융지주와 NH투자증권에 대한 선호를 유지함. 다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다면 일부 영업점지가 2019년에 해소되는 삼성증권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함

5. 금주 일정

일자	국가	내용	전기치	예상치
10월 15일	미국	근원 소매판매 (MoM) (9월)	0.3%	0.4%
10월 16일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YoY) (9월)	2.3%	2.5%
10월 16일	중국	생산자물가지수 (YoY) (9월)	4.1%	3.5%
10월 17일	유럽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YoY) (9월)	0.9%	0.9%
10월 19일	중국	GDP (YoY) (3분기)	6.7%	6.6%

6. 전주 뉴스/자료 Review

뉴스	<p>▶ ‘질병수술담보’로 손보 공격영업 박차 (한국보험신문) 질병수술 담보가 최근 40대(담보 40개) 보장까지 확대(5년전 최대 21개), 갱신형으로 생명보험사 대비 낮은 가격으로 경쟁력 확보, 다만 향후 연령 증가시 손해율 상승 가능성이 있으며 보험료 인상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함</p> <p>▶ [단독]금감원 "10일까지 암보험금 지급계획 내라 (머니투데이) 삼성생명에 대한 부조위 '지급 권고' 참고해 의견서 제출..보험사 "보험금 지급 압박" 반발.</p> <p>▶ 증권거래세 인하 군불 때는 與…기재부는 ‘난색’” (머니투데이) 6월 5일에 하이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양도소득세의 기준 및 대상 강화 없이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불가능합니다.</p> <p>▶ 은행대출 연체율 2개월 연속 상승 (국제신문)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2개월 연속 상승했음.기업대출: 0.87%로 전월 말보다 0.06%포인트, 가계대출: 0.29%로 전월 말보다 0.02% 상승했음.</p> <p>▶ 중금리 대출 공급 7.9조로 늘린다...최고금리 10%P까지 낮추기로 (조선비즈) 정부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사잇들 대출의 보증 한도를 늘리고, 대출 자격 기준을 완화함.</p> <p>▶ 한화손보, 후순위채 최대 2000억 발행 (한국경제) 한화손해보험이 영구채로 1900억원을 마련 한 지 3개월 만에 또 후순위채를 발행해 최대 2000억원을 조달함.</p> <p>▶ ‘자비 털어 샀는데’…증권사 해외부동산 재고 쌓인다 (머니투데이) 과당경쟁 빚어 무리한 인수, 기관투자자에 매매각 난항…자체 보유로 떠안아, 유동성 위험 확대, 최근의 분위기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p> <p>▶ 반사이익 기대했던 상가·오피스텔시장도 양극화…부동산 시장 전방위 위축 (데일리안) 아파트 시장 위축으로 투자자들이 수익형 상품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전방위로 위축돼 수익형 부동산도 빠르게 분위기가 식고 있음</p> <p>▶ 케이뱅크, 1200억원 유상증자 결의..사모펀드 IMM 주요주주로 참여 (파이낸셜뉴스) 은산분리 규제완화로 숨통이 트인 케이뱅크가 1200억원 규모의 증자를 하기로 했음</p> <p>▶ [국감 2018] 금융당국 국감 ‘인터넷은행·삼바’ 쟁점 (조선비즈) 금융당국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11일 시작됨.</p> <p>▶ ‘몸값 1조’ 서울스퀘어 매각 무산위기 외 (파이낸셜뉴스) 서울스퀘어 매각이 자본시장법과 부장산법 위반 등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음</p> <p>▶ 원·달러 환율 1140원대로 급등 1년 ‘최고’ (조선비즈)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1140원대로 급등했음 (원화 약세).</p> <p>▶ [국감 2018] 금융위원장 "서민대출, DSR에 불포함" (조선비즈) 이달 중 은행건전성 관리지표로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정책자금 서민대출 등은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음</p> <p>▶ 해외 IB "한국은행, 연내 금리 인상 전망" 확산 (조선비즈) 1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다수의 해외 IB는 한은이 10월이나 11월 한 차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음</p> <p>▶ 금감원, 고양이에게 생선 맡겼다 (조선비즈) 금감원에서 최근 5년간 공시나 회계 등 기업 관련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이 5명 중 1명꼴로 주식 등 금융 상품 관련 투자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되었음</p> <p>▶ ‘강달러’에 주목받는 달러예금...두달새 2.6조 급증 (조선비즈) 미국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달러 예금 및 상품이 채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p>
----	---

7. Global Peers

		현재가 (Local)	Mkt. Cap. (USD bn)	PBR (FY18F)	PER (FY18F)	ROE (FY18F)	ROA (FY18F)	Performance (%)				
								1 W	1 M	3M	6M	YTD
한국	KOSPI	2,162		0.9	8.8	11.1	3.1	-4.7	-5.3	-5.4	-11.5	-12.4
	보험	17,117		0.6	8.3	7.4	0.8	-5.7	1.1	-2.9	-9.9	-19.0
	삼성생명	90,300	15.9	0.6	8.1	6.9	0.7	-6.8	-1.4	-6.5	-20.4	-27.5
	한화생명	4,745	3.6	0.4	7.0	5.6	0.4	-9.1	-2.0	-7.0	-20.4	-31.3
	동양생명	6,100	0.9	0.4	12.3	3.3	0.2	-2.1	-2.2	-17.0	-26.4	-19.7
	삼성화재	272,000	11.4	1.1	12.6	8.5	1.3	-3.9	4.0	2.8	3.2	1.9
	DB손해보험	70,400	4.4	0.9	7.5	12.7	1.2	-3.8	10.5	15.2	19.7	-1.1
	현대해상	39,000	3.1	0.8	6.5	13.8	1.1	-7.6	8.2	14.0	8.9	-17.0
	메리츠화재	18,500	1.9	1.2	7.9	14.8	1.4	-4.9	3.9	-3.6	-8.9	-21.3
	한화손해보험	6,290	0.6	0.5	5.3	10.5	0.9	-7.5	-7.0	-3.7	-15.1	-22.7
	증권	1,652		0.7	7.8	9.4	1.0	-8.1	-9.4	-9.9	-17.8	-16.8
	삼성증권	28,350	2.2	0.5	6.8	8.1	1.0	-8.7	-9.1	-14.0	-20.6	-22.5
	미래에셋대우	7,160	4.2	0.6	8.1	7.8	0.6	-9.7	-12.4	-11.8	-20.0	-22.1
	NH투자증권	12,350	3.1	0.7	8.6	8.6	0.9	-8.2	-6.4	-9.5	-11.2	-11.2
	한국금융지주	63,400	3.1	0.8	6.1	14.8	1.2	-9.8	-8.8	-17.4	-20.8	-8.1
일본	키움증권	75,900	1.5	0.9	6.4	16.5	2.2	-8.8	-15.9	-23.9	-31.9	-13.4
	Nikkei225	22,695		1.7	16.0	10.6	2.1	-5.3	-1.7	0.4	4.2	-0.3
	보험	1,075		0.8	11.1	7.0	0.9	-4.4	5.9	7.3	8.3	1.4
	Dai-ichi Life Holdings	4,467	28.3	2.5	52.1	4.7	2.6	-8.0	-2.6	-0.3	20.3	52.1
	Japan Post Insurance	2,675	14.3	0.8	17.5	4.6	0.1	-1.7	6.5	17.0	4.5	1.0
	Tokio Marine Holdings	5,375	34.5	1.0	14.7	7.3	1.1	-3.7	5.9	2.1	8.3	4.6
	증권	398		0.8	10.7	6.8	0.6	-3.6	0.7	1.5	-7.4	-8.4
	Nomura Holdings	538	17.5	0.7	7.5	9.0	0.6	-2.9	4.4	-0.8	-15.9	-19.1
	Daiwa Securities	666	10.1	0.8	10.3	8.6	0.6	-3.0	-0.5	1.6	-1.4	-5.8
	SBI Holdings	3,180	6.4	1.6	13.9	11.9	1.2	-4.8	2.7	17.0	16.6	35.0
중국/홍콩	Hang Seng	25,801		1.2	10.7	12.9	1.1	-2.9	-5.4	-9.5	-16.3	-13.8
	상해A주 지수	2,730		1.2	10.6	12.2	1.1	-7.6	-2.8	-7.9	-17.5	-21.2
	보험	136		1.2	10.9	11.1	1.9	-1.3	0.0	-6.0	-15.9	-24.6
	China Life	17	80.6	1.2	10.7	12.1	1.4	0.2	1.3	-13.8	-21.6	-30.3
	Ping An Insurance	74	170.0	2.2	11.5	19.9	2.1	-3.7	-0.7	3.9	-11.9	-9.1
	AIA	63	97.0	2.2	19.0	12.3	2.5	-1.3	-1.6	-7.6	-10.7	-5.6
	증권	74		1.0	15.1	6.7	12.7	-14.4	-11.6	-19.7	-37.9	-41.0
	CITIC Securities	12	25.1	0.8	10.9	8.0	2.0	-8.6	-6.6	-21.5	-36.2	-24.9
	Haitong Securities	7	12.0	0.5	9.3	6.3	1.6	-3.9	-5.7	-14.9	-38.8	-41.3
	Huatai Securities	11	15.8	0.7	10.7	7.4	1.9	-2.7	3.3	-9.9	-30.6	-30.7
미국	S&P500	2,767		3.2	17.0	18.9	3.5	-4.1	-4.7	-1.2	4.2	3.5
	보험	372		1.3	11.5	11.3	1.4	-5.9	-5.4	-1.5	-4.2	-7.4
	AIG	50	44.2	0.7	11.2	6.8	0.8	-7.1	-5.5	-8.2	-7.1	-16.5
	Metlife	44	43.6	0.9	8.4	10.4	0.7	-7.3	-3.7	-0.8	-6.6	-13.3
	Prudential Financial	98	40.8	0.9	8.0	11.6	0.6	-6.4	0.7	2.8	-6.3	-15.0
	증권	187		2.0	13.6	13.3	1.2	-5.8	-7.5	-8.0	-8.9	-8.0
	JP Morgan	107	359.4	1.5	11.7	13.5	1.3	-6.7	-5.8	0.6	-3.0	0.0
	Goldman Sachs	214	83.9	1.1	8.7	12.7	1.0	-5.2	-6.3	-5.5	-16.4	-16.1
	Charles Schwab	49	66.2	3.5	19.9	19.6	1.3	-4.8	-2.8	-3.2	-4.0	-4.6
	MSCI Europe	121		1.6	13.5	10.4	1.0	-4.6	-4.7	-6.6	-5.2	-7.7
유럽	보험	73		1.1	10.4	12.8	1.0	-5.2	-2.3	-0.5	-6.1	-5.3
	Allianz	181	88.9	1.2	10.2	11.7	0.8	-6.1	-2.0	0.7	-4.3	-5.4
	AXA	22	63.0	0.8	9.0	8.8	3.8	-5.2	2.0	8.3	-1.0	-9.2
	Prudential plc	1,588	54.1	2.3	10.5	22.7	0.5	-6.3	-6.3	-8.0	-14.0	-16.7
	Munich Re	183	31.6	1.0	10.6	9.1	5.5	-6.0	0.4	-2.6	-4.6	1.0
	증권	66		1.0	13.3	6.6	0.3	-6.4	-7.6	-8.1	-11.7	-16.8
	UBS	14	55.0	1.0	10.3	9.5	0.5	-5.6	-8.4	-4.9	-14.9	-19.2
	Credit Suisse	13	34.6	0.8	11.6	6.6	0.3	-5.5	-6.9	-9.8	-13.9	-21.7
	Deutsche Bank	9	22.5	0.3	24.3	0.9	0.1	-3.2	-3.3	-2.2	-19.7	-40.8

자료: 한국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한국 지수 추정치는 Inguide 컨센서스 기준, 이외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8. 주요국 금리 동향

			금리 수준 (%)						변동폭 (bp)				
			현재	1W	1M	3M	6M	연초	1W	1M	3M	6M	YTD
한국	국고채	1 Year	1,850	1,864	1,721	1,852	1,846	1,853	-1.4	12.9	-0.2	0.4	-0.3
		3 Year	2,050	2,080	1,890	2,090	2,150	2,134	-3.0	16.0	-4.0	-10.0	-8.4
		5 Year	2,230	2,265	2,060	2,330	2,375	2,347	-3.5	17.0	-10.0	-14.5	-11.7
		10 Year	2,400	2,445	2,250	2,547	2,578	2,467	-4.5	15.0	-14.7	-17.8	-6.7
일본	국고채	1 Year	-0.137	-0.131	-0.111	-0.127	-0.153	-0.145	-0.6	-2.6	-1.0	1.6	0.8
		10 Year	0.150	0.155	0.113	0.040	0.037	0.048	-0.5	3.7	11.0	11.3	10.2
중국	국고채	1 Year	2,864	2,969	2,848	3,076	3,236	3,834	-10.5	1.6	-21.2	-37.2	-97.0
		10 Year	3,585	3,625	3,679	3,522	3,717	3,902	-4.0	-9.4	6.3	-13.2	-31.7
미국	국고채	1 Year	2,647	2,607	2,542	2,342	2,087	1,732	4.0	10.5	30.4	56.0	91.5
		10 Year	3,161	3,233	2,963	2,845	2,836	2,405	-7.2	19.9	31.6	32.6	75.6
유럽	국고채	1 Year	-0.569	-0.548	-0.542	-0.545	-0.550	-0.611	-2.1	-2.7	-2.4	-1.9	4.2
		10 Year	0.498	0.573	0.411	0.357	0.515	0.427	-7.5	8.7	14.1	-1.7	7.1

자료: Bloomberg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의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강승건)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 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